

## 일본 문화의 개방에 따른 제주의 지역개발

이창익\*

### 1. 들어가는 말

일본문화가 개방되었다. 공식적으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산처럼 보였던 문화개방이 시대의 흐름과 개방화, 자유화의 물결로 공식화되었다. 찬반논쟁이 치열하였지만 시대의 조류로서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모양이다. 호기심과 불안이 어우러진 일본문화 개방을 바라보면서 문화개방이 제주에게는 오히려 지역개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 문화개방=지역개발이라는 등식이 아닌, 문화개방을 통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되돌아보고 문화유입에 따른 부작용과 그 분석을 파악하고 사전에 방지하며, 그것을 이용한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일본문화의 개방이야말로 일본관광객이 주요 고객인 제주에 있어서는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아닌가 한다.

본 포럼에서는 일본문화 개방의 부작용과 분석대신에 문화개방까지의 흐름과 문화개방을 어떻게 적절하게 이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고자 한다.

식자층이든 비 식자층이든 일본에 관하여 질문을 해보면 한국사람이면 누구나 다 한마디씩은 자신있게 촌평을 한다. 특히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일본이라는 국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외국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 하던 시절, 돈을 벌기 위해 건너간 사람들, 강제 징용에 끌려 갔다가 정착한 사람들, 4·3사건당시에 몸을 피하기 위해 도망친 사람들, 6·25전쟁 발발 후 친척을 찾아 나섰다가 정착한 사람들, 그리고 최근까지도 친지방문을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일본과의 관계는 어느 타 시도보다 활발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관광지 제주를 찾는 일본인들과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많은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과의 긴밀한 접촉을 통하여 우리들은 일본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많이 보게 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과 역사를 통하여 입력된 일본인의 이미지는 아직도 우리들의 한구석에 부정적으로 남아있고 그것을 되새기면서 일본을 바라보았을때 우리들은 일본에 대한 아주 작은 관대함마저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소위 기생관광으로 대변되는 일본관광객들의 모습을 통하여 섹스 애니멀임을 확인하게 되기도 한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일본을 바라다보면 세계에서 가장 예의가 바르고 검소하면서도 겸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국과 견줄 수 있는 경제대국인 일본을 부러운 마음으로 보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듯 일본에 대한 양면성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은 일본에 대한 불행했던 역사로 인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관계로 점철되어

\* 제주대학교 일어일문학과

왔다. 양국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정상화 시키는 길은 정치 지도자 몇 명의 노력이 아닌, 민간차원에서 문화이해와 교류 그리고 협력하는 길 밖에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 개방과 협력을 통한 새로운 문화 창조와 더불어 이를 국가 혹은 지역개발의 자원으로써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문화와 역사적, 지역적으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일본문화가 우리의 생활 깊숙히 침투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공식적인 개방을 미루어 온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느 곳 보다도 가장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제자유도시를 눈앞에 둔 제주도야 말로 일본문화의 공식적인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제주의 지역개발을 위한 발전적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 2. 일본문화의 몇가지 특징

일본이라는 사회는 전통문화의 추구하고 보존에 어느 나라보다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며 이를 즐기며 아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진 대중문화의 비중도 각별하여 전통문화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니고 자리매김하여 왔다. 일찍이 일본은 대중문화를 일본국민의 조정수단으로 적절하게 이용해 왔다. 사무라이 영화 등을 통하여 국가에 대한 복종을 세뇌시켰고 영화를 통하여 폭력에 대한 미화와 자살에 대한 정당화를 가르쳤다. 이는 일본이 문화정책을 통하여 국민 전체가 일체감을 느끼고 국민을 하나로 묶는 one nation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국가 위기에 대응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의 대중문화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문화의 재탕의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동양에 위치하면서도 서구의 문화를 지향하는 이중적 성격을 볼 수 있으며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할 때 이는 그들 자신의 문화를 고수하며 서양문화에 개방적인 일본만의 독특한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제화시대에 부응하는 적절한 전략으로까지 보인다. 미국문화 베끼기를 통하여 탈 동양화와 선진 서구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볼 수 있고 제3자인 우리로서는 일본문화를 접했을 때 일본문화에 걸려진 동서양의 문화를 동시에 접할 수 있다는 면도 있다.

## 3. 문화개방에 이르기까지

일본문화 개방의 문제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 2월 당시 주일대사였던 공로명씨에 의하여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공청회가 열리고 정책초안을 마련하는 등 일시적인 검토가 있었지만 반대론자의 논리에 밀려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이 개방문제는 작년 오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여 발족한 「한일문화교류 정책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연구되어 왔다. 문화개방 문제는 한일외교의 쟁점이며 한국문화와의 전쟁 (정신적이든 상업적이든)이기도 하며 민감한 문제일 수 밖에 없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방일시 상당한 속도로 단계적인 개방을 한다는 약속을 한 이후, 10월 20일의 국무회의에서 교류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이 보고되었고 점

차적으로 개방의 가시화가 눈에 띄기 시작하였다. 4년전 개방이 논의될 당시에는 한국문화의 상대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문화민족적 차원의 반대가 우세한 반면, 지금의 문화적 개방은 한일협력의 화두로 부상하면서 그 당위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 4. 개방 논쟁의 세가지 논리

첫째로는 '문화논리'로 개방 반대론자들의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두 종류의 주장이 있는데 하나는 일본문화의 본질을 저질성 폭력성, 선정성 등, 저급문화로 규정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문화정체성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주장은 모두 설득력을 잃고 있다. 저급문화 유입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사회는 충분하고 유일하게 일본문화에만 적용되는 문화쇄국주의 논리는 보편주의와 국제화시대의 세계주의 입장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단,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여과장치를 통하여 우리의 정서에 알맞는 틀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둘째, '경제논리'로 여타의 외국상품에 대한 국내시장의 개방 문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내수시장의 잠식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단계화시키고, 그와 동시에 국내 상품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셋째 '정치논리'로 한일관계 개선의 차원에서 보는 견해이다. 세계는 인접국가와의 정치적 연대감을 강화시키는 불력체제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일양국은 협력을 위한 문화교류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며 양국을 이해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논리를 제외한 이 정치, 경제 논리는 옳다고 생각되지만 개방이라는 차원이 단순한 개방의 차원일 수는 없다. 한일외교의 한 축을 이루기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그리고 지역개발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정책목표의 우선성을 정하여 단계적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5. 일본문화의 개방의 현실과 전망

대통령의 방일에 따른 한일 역사적 관계의 청산과 문화개방에 따른 일본인의 안도감은 여론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방일이후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본인 중에서 한국인에 대한 친근감을 갖고 있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50%를 상회했다고 한다. 일본의 한국관에 대한 변화라고 단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양국간의 관계가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작년 일본을 방문한 이후 가시화된 개방부문을 '즉시개방 부문'과 '즉시개방이후의 부문'으로 구분하고 '즉시개방 부문'은 공동제작영화, 한국영화에 일본배우 출연, 세계 4대 국제영화제 수상작(칸느, 베니스, 베를린, 아카데미) 한일 영화주간 개최 등과 일본어판 출판만화와 만화잡지가 그 대상이 되었다.

공식적인 개방이 시작되어 약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우려한 만큼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는 듯 하다. 예를 들면, 4대영화제의 대상을 차지한 타케시감독의 '하나비'가 상영되어 큰 기대를

모았지만(한국에서는 불안, 일본에서는 기대) 작품성에 대한 몇몇 언론의 논평을 제외하고는 그리 큰 관중들의 시선을 모으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물론 이는 개봉관에서 110여일동안 539만명의 관객을 끌어 모은 한국영화 '쉬리'의 영향도 컸을 것이고, 아직까지는 언론이나 관객들사이에서의 눈에 보이지 않은 배타감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아주 초기의 단계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며 차츰 익숙해지면서 양국의 문화적인 공통점과 공통적인 정서로 상당한 흡수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나비'이후 개봉관에서 상영된 '우나기'는 관객들에게 일본영화의 저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일본의 문화개방에 따른 파급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으며 전면적인 개방을 할 때를 위한 대비책을 서둘러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영화 제작 수준을 한단계 높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보다 한국적인 정서를 부각시켜 일본영화에 경쟁할 수 있는 자극적인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역시 우리의 정서와 가깝게 연관되는 것이므로 적절한 대비와 효과적인 활용을 통하여 작품의 수준을 향상시켜 상품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다.

## 6. 문화개방 이후의 제주와 그 기회

문화개방 이후 제주도가 피부로 느끼는 손실적, 해악적인 요소는 그리 많지 않은 듯 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러한 영향이 서서히 나타나리라고 본다. 제주도는 일본과 관련이 많은 관계로 인하여 오히려 다른 곳보다도 쉽게 개방의 영향을 크게 받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영향이 우리 제주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해치고 젊은이들이 일방적으로 일본문화를 동경하며 모방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주는 다른 지방의 문화와의 접촉, 외지인들의 자연적, 인위적인 유입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고유한 문화가 한국에서도 제일 많이 보존되고 있는 지역이다. 제주문화가 개방의 물결에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

문화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본의 문화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제주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국제적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제주의 입장에서 가장 제주도적인 것만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흔히 제주를 하와이와 비교하곤 한다. 나는 언어적, 문화적, 지리적, 환경적인 모든 기본적 요건이 서로 다른 곳을, 섬이라는 공통적 이유 하나만으로 제주도의 발전 모델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발에 필요한 노하우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지만 우리도 하와이처럼 될 수 있다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지상에서 가장 훌륭한 자연의 혜택을 받은 것처럼 소개하는 것도 과장된 것이지만 자연 하나만을 관광자원화시키는 것은 미래의 관광산업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그 대안으로서 자연+문화이다. 고유의 문화를 자원화하여 상품으로 포장하고 그것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었을 때, 제주가 가장 세계적인 곳이 될 수 있다.

제주는 제주만의 고유한 문화이외에 이질적 요소의 문화도 외지인에 의하여 많이 들여왔다. 이러한 문화와 융합하여 변질된 제주문화도 나타나고 있지만 고유의 풍습을 그대로 살리는 한국의 고전적인 문화를 실생활에서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독특한 문화를 관광정책과 지역개발에 이용한다면 무엇보다도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서 자리잡을 것이다.

일본인은 세계 어느 국민보다도 겉으로 조용하면서도 속으로 호기심을 갖고 있으며 눈으로만 보는 것에서 탈피하여 체험을 증시하면서 자신의 것과 다른 전통과 대중문화를 향유하고 즐기려 한다. 北海道の 아이누민속촌에서 공연하는 일본 원주민인 아이누인들의 춤은 자신들이 몇분간 춤을 춘 후, 관람객과 함께 어울리며 즐긴다. 일본이 자랑하는 전통극인 카부끼의 하나미치(花道)도 관람석 한가운대를 통과하여 관람객과 호흡을 함께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주문화를 알리고 보급하며 자원화시키는 데에 문화 표현의 주체와 객체를 함께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가라는 제안을 하고 싶다.

### a. 문화박물관의 건립

민속 자연사 박물관과는 다른 제주문화박물관을 건립하여 제주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한가. 직접적인 방법으로 관람객과 호흡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전통적인 제사, 장례, 결혼식 등의 절차와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빙떡을 단지 사먹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자신이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제사음식을 차릴때에는 제사떡과 전을 부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의 정서와 한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 b. 전용극장의 설치

영상문화 보급의 차원에서 우리의 영화를 외국인에게 소개하는 전용소극장의 건립이다. 우수영화(?)를 골라 자막을 넣어(혹은 음성으로 더빙을 한) 우리 영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이며, 일본 영화를 일본의 개봉관과 동시에 병행하는 방법도 좋다. 일본의 개봉관에서는 1,500엔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의 삼분의 일 가격으로 감상할 수 있기때문에 상업적 차원의 아이디어로 한번 생각해볼만하지만, 채산성이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 c. 공연의 자유화

제주를 문화공연의 자유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조용필의 디너쇼'를 할 때, 호텔공연장에는 일본 곳곳에서 조용필투어를 보기 위한 일본팬들이 부쩍댄다. 한국인은 별로 없고 마치 공연장이 일본인 것과 같은 착각을 가지게 한다. 유행과 인기가 있는 곳에 일본인들은 몰려 들고 그 대중성 속에서 본인의 정체감을 확인하며 다른 사람들과 일체가 됨을 즐긴다.

제주를 문화(전통문화든 대중문화이든)의 자유스런 공연장으로 하여 일본인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을 제주로 끌어들이자는 생각이다. 여러 가지 상업적인 면에서 흥행의 여부가 문제가 되겠지만, 공연-관광-문화상품을 통하여 제주를 찾게 만들자는 것이다. 파바로티의 공연을 산과 바다를 배경으로 하여 유치한다든가 세계적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제주관광상품과 연계하여 유치한다든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그리고 자연과 문화를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는 선언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이미지(image)의 구축은 지역개발을 위한 큰 재산 이 될 것이다.

#### d. 문화엑스포의 개최

섬문화축제가 끝난지 거의 1년이 지났다. 축제장소였던 아라벌은 당시의 화려함과 복직거림은 없고 황량함만이 남아있다. 축제 후 이용계획이 없이 큰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 제주도가 시도한 이런 축제가 눈에 보이지 않은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평가도 있다. 어떤 것도 맞는 말이다. 단, 준비기간이 짧아 홍보가 부족했고 프로그램 자체가 기대수준에 못미치고 오일시장터와 같이 전략하고 말았다는 것과 조금은 지리하고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받아들여 차제에 보완을 해야 한다. 준비를 충실히 하고, 홍보를 효과적으로 하며 빠른 진행과 더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면 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구경만 하는 수동적인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여 문화 놀이마당을 함께 즐기는 방법을 뜻한다. 공연 중이나 공연 후에 민속의상을 빌려 입고 춤과 놀이를 익히게 하여 한데 어울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 7. 언어 · 문화자유도시의 표방과 지역개발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의 계획은 이미 기정 사실화된 듯 하다.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제주도 기획관리실장이 소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88퍼센트의 제주도민이 국제자유도시 결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이는 국제자유도시라는 생소한 용어가 이제 귀에 익숙해진 탓도 있겠지만, 도내 주요 언론에서 다루는 중요한 쟁점으로서의 홍보 영향이 컸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이 단지 도민의 여론조사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을 지 회의적이기는 하지만 이 조사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아간다고 한다면, 제주도민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개방 마인드이며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외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다.

외국어의 필요성을 외면하고 문화개방에 폐쇄적인 자세를 취한다면 한낱 깃대기밖에 없는 국제자유도시가 될 것이며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단지 달려와 향락만이 남는 황폐한 도시로 전략하게 될 것이다.

자유도시로서의 기능 가운데 자유도시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은 도민의 국제화이다. 제주도 사람들은 내륙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어려운 방언 때문에 불편함을 주지않기 위해서 표준어를 사용한다. 이것은 언어주체성의 상실이 아니다. 제주인의 개방마인드를 보여주는 한가지 예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어는 물론 특히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여 이처럼 언어와 문화개방의 기반을 만들어야 하겠다.

여러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민족 타국가의 문화를 소개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일 것이다. 이러한 문화 백화점이 제주에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만 여기에는 많은 문제점도 발생한다. 우선 우려되는 것이 제주문화의 변질이다.

문화는 주체성을 가지고 상호 교류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데 그 힘이 있다. 그러나 과연 제주문화가 그러 주체성과 자생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으나 고유한 제주 문화 발굴을 통하여 경쟁력을 키울 때, 우리의 고유문화는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고 자유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어느 곳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바로선 예절과 질서, 그리고 치안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문화자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패전 당시 그리고 그 후 십수년 동안 전재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치안과 질서가 어지러웠다. 그러나 의식개혁을 통하여 그리고 1964년 東京올림픽을 계기로 문화선진국의 지위로 부상하여 지금의 일본이 되었다. 우리가 일본의 상황과 대비하여 보았을 때, 겉으로 보여지는 면은 일본과 유사할 지 모르지만, 내면적 요소들은 너무나도 판이하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문화자유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인적교류의 확대이다. 각계각층의 지속적 상호방문의 기회를 통하여 양국간의 문화를 익혀서 지역개발과 문화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제주문화의 우수성과 신뢰성이 인정될 때, 제주도의 신화와 민담 등이 일본의 교과서에 실리고 제주의 고유한 음식이 일본의 식당가를 석권할 수 있는 것은 꿈만이 아닐 것이다.

## 8. 마치면서

문화는 흐름이다. 돈이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 문화는 상품이다. 모든 문화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재생산을 한다. 또한 문화는 이념을 상호 운반한다.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이념이 문화라는 배를 타고 운반된다. 우리는 문화개방을 지역개발과 문화선진국을 향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적극적인 개방마인드만이 경쟁체제의 세계속에서 생존,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개방을 통해 문화를 자원화하려는 노력이야말로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한 우리에게 유일한 에너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무분별한 개방은 지양되어야 하며 긍정적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부정적인 요소를 선별할 수 있는 주체적인 판단능력의 함양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교육, 계몽,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만이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며 동시에 문화개방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